

2021학년도 제8회 조남중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회 의 록

위원장

학교장

○ 일시: 2021년 12월 21일(화요일) 16:00~

○ 장소: 온라인 회의실

○ 회 순 1. 개의 2. 국민의례 3. 학교장 인사
4. 위원장 개의 선언 5. 안건심의 6. 폐회

○ 의사일정

- 1 2021학년도 학교회계 제7차 추가경정예산(안)
- 2 2021학년도 동절기 학교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보고
- 3 조남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202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연수-

○ 개회(간사) : 지금부터 2021학년도 조남중학교 제8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교장선생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학교장: -인사말씀-

○ 간사: 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과 개의 선언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인사말씀후) 9명의 위원 중 8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첫 번째 안건으로 2021학년도 학교회계 제7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해당부서에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자(000): 이번 추가 경정 내역은 저희가 자체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나서 정리된 사업의 잔액 부분들에 대해서 감액과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적 사업비로 교과 보충 집중 프로그램 운영비 2525만 원 배부된 내용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수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교생들이 급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와 교육청에서 배정받은 예산을 다 쓰지 못하게 됐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납 계획을 잡고 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예산 내역을 좀 봐주시고요.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학급이 늘어나면서 교원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시는 교무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좀 편성을 했고요. 기존에 계획을 했으나 사용하지 않았던 연수비나 시설 관리 관련해서 세워놔던 예산들 그리고 공공요금 같은 부분들 감액 조치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총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안은 16억 110만 원 정도로 기정 예산액보다 약 445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000):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난번 운영위 회의 때 전교생 등교를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 기

본 숟가락 젓가락 이런 식기 도구가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급식비가 남아서 지금 교육청이나 이쪽으로 반납을 하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남은 예산으로 그런 비품 구입은 안 되는 건가요?

○제안자(000): 저희가 이제 교육청에서 배정받은 금액이나 시에서 배정받은 금액은 이제 그 목적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식품비에도 들어가고 운영비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기만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반영이 됐고 남은 지금 예산들을 지금 반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000): 그러면 그런 비품 구입에 대한 예산은 잡아놓으신 거예요?

○제안자(000): 네

○위원(000): 그러면 저 혹시 내년에도 아이들에 대해서 890에서 900명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그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은 예산을 잘못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게 부족하게 된 건지, 아이들의 입학 인원 정원 수는 미리 예산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 금액 예산이 올해 부족했던 부분은 왜 그랬을까요?

○제안자(000): 저희가 물론 2년 3년 장기적인 예측을 하고 이제 집행을 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예산은 그 해 이제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산정되고 배부되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 그걸 예측해서 구매할 수 없는 그런 한계는 좀 있습니다.

○위원(000): 그러면 내년은 예산 부분이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이번에는 가능하게 되는 걸까요?

○제안자(000): 네

○위원(000):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갈 줄 몰랐었고 올해는 전면 등교를 계속 학기 초부터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산을 하고 있었었는데 학교에서 이런 급식 상황에 대해서 돌아가는 부분이 지금 50분인데, 지금 아이들이 시간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내년에는 거의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다고 보고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준비가 될까요?

○제안자(000): 네 저희도 이제 전면 등교를 지금 예산을 하고 학생수 900명에 교직원까지 하면 이제 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리 인원도 늘어나야 되고요. 식당도 조금 더 확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현재로서는 당장 내년에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안 됩니다. 건물이 어떻게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증축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수업시간이나 해서 이제 급식시간도 이제 조정을 한번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학생 수가 더 늘어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고 다각도로 급식 운영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000): 지난번 50분 하고서 그다음에 전면 등교할 때는 70분을 했어요.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고 계시는 듯하네요. 70분을 해보고 나니까 70분

하면서 방역 선생님을 세 분을 투입을 하고 소독하는 데 있어서 새로 한 분을 뽑아서 한 명 더 투입해서 세 분을 1시간정도씩 투입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바로바로 소독을 할 수 있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자리를 띄어앉다가 그때는 이제 위드 코로나 하면서 이제 붙여 앉았어요. 그러다 보니 전면 등교해도 70분 중에 거의 한 15분 정도가 남더라고요. 적어도 10분 이상 남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 부분도 애매했어요. 그렇다고 오랜만에 좀 점심 시간이 여유가 생겨서 조리원님들도 마음의 여유가 좀 있고 또 더 먹고 싶은 아이들이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못 먹기도 그동안 했어요. 그런 가운데도 시간 여유가 있다보니까 혹시 먹고 싶다고 하는 애들도 일부 와서 또 잘 먹기도 하고, 그전에는 마지막에 먹는 1학년 어느 반 아이들이 시간은 되나 부담스러워서 못 먹겠다 하는 애들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그런 애들도 해소가 되고 해서 이제 영양 선생님도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은 이제 점심 시간이 너무 길다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3분의 2 등교로 하면서 저희가 11월 22일부터 12월 18일까지 그건 거의 한 달 정도를 70분하다가 이번 주부터 다시 3분의 2 등교하면서 50분으로 줄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띄어 앉게 하고 그 대신 방역 선생님들 세 분이 지난번 같이 전면 등교할 때 같이 그대로 들어와서 소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보다는 그래서 아마 중간 텀이 좀 줄어들 수 있어서 이번에는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아이들 생활지도 측면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 내년엔 한 85명 정도 늘어났을 때 70분 하면은 그게 크게 지금 위드 코로나 수준으로 간단면 옆에 바로 앉히고 하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위원(000): 전면 등교시 70분이면 그러면 수업시간이 그럼 40분으로 계산이 되나요?

○위원(000):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45분 하고 5분 쉬는 시간으로 바꾸든지 또 방법을 이제 취해야 되겠죠. 올해는 올해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45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점심시간 70분 하면은 이제 하교 시간이 그만큼 늦어지겠죠. 한 30분 정도 늦어져도 괜찮다면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도 합의 하에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저희 학교에서 지금 교실로 가는 배식은 제가 볼 때는 시설상 그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3교시 끝나고 한 학년이 먹고 4교시 끝나고 두 학년이 먹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건이 그렇게 해야만 된다면 또 그렇게 해야겠죠. 어느 게 더 좋은지 그 부분은 사실은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하고 다를 수도 있죠. 고민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은 27학급에서 내년엔 30학급 되면은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건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많습시다. 그 부분을 가장 합리적으로 잘 해결하는 게 이제 우리 모두의 상황인데 그런 입장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첫 번째 안건인 2021학년도 학교회계 제7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번째 안건으로 2021학년도 동절기 학교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해당 부서에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000) : 네 행정실장입니다.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 안전 점검을 매달 하고 1년에 정기적으로 종합적으로 세 네 차례 정도 동절기 해빙기 우기 이럴 때 종합 시설 안전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 점검 결과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매번 하는 업무지만 지금 아직 학교가 건물도 그렇고 신설된 지 몇 년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크게 보수해야 할 부분들이 나타나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모든 전기나 건축이나 소방이나 가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안전한 걸로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점검표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두 번째 안건인 2021학년도 동절기 학교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보고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 번째 안건으로 조남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해당 부서에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000) : 네 저희 학교가 개교한 지 지금 5년 차 5년이 됐습니다. 내년 6년 차가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학생 수가 적어서 운영위원회 정수가 9명에서 12명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소 인원으로 구성이 돼서 이제 운영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학급이 늘어나고 또 내년에도 학급이 늘어나고 계속 이제 해마다 학급이 늘어나는 추세라서 지금 내년에는 학생이 900명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890명에서 900명 정도 예상이 되고 있다보니까 표에 보시면 학생 수가 200명에서 1천 명 미만이 9명에서 12명 정수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지금 위원 정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11월 초에 경기도 의회에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개정이 돼서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설치 운영 조례가 개정이 되다보니까 그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네 가지 정도 해서 총 우리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은 여섯가지 조항이 지금 이제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규 대비표를 보시면 위원 정수는 기존 학부모 위원이 4명 그다음에 교원 위원이 3명 지역 위원이 2명 이렇게 9명 정수가 있었는데요. 이걸 내년에 개정을 해서 총 12명 학부모 위원 6명 교원위원 4명 그리고 지역 위원 2명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선출관리 위원회도 이제 학부모 대표하는 3인으로 구성하는 걸로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조항을 운영위원회 규정에 이제 반영을 했고요. 교원 위원도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단기명에 의해서 이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궐 선거도 지금 조례가 만약에 운영위원장님이 안 계시면 부위원장님이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조례에 개정돼서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보궐 선거도 저희가 기존에는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원 정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않을 경우 선출을 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는 6개월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학부모님이나 학생들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 관련, 학부모님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한 다음에 운영위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 시에는 의견을 들을 수 있게 참석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게 시정명령 신청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운영위원회 의결은 아니고 심의 기간이다 보니까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하더라도 사실 학교에서 그거를 100% 다 반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 그냥 어쩔 수 없이 반영하지 않게 되면 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더 강하게 가서 이제 학부모들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시정 명령 신청이라하여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의결한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교육지원청에 요청을 해서 시정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 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000): 200명 이상에서 천 명 미만이 9명에서 12명 위원 수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현재 9명으

로 알고 있는데 인원을 더 늘리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여쭙보고 싶었습니다.

○제안자(000) : 다른 이유는 없고요. 이제 학생 수가 많은 만큼 그만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인원이 필요한데요. 지금까지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돼서 운영되다 보니까 사실 학부모 위원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생 수가 늘어나는 만큼 학교운영위원회 규모도 커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 없으시면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십시오. (8명의 위원 거수) 8분의 위원이 찬성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없으시고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8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하여 세 번째 안건인 조남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조남중학교운영위원회 회의 폐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연수진행-----

1. 2022학년도 예산편성 추진일정
2. 2022학년도 재원배분 및 기준경비
3. 2022학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학부모 의견수렴 관련 내용 및 적극관심 협조요청

출석인원	학부모위원	000, 000, 000, 000 (4명)	
	지역위원	000 (1명)	
	교원위원	000, 000, 000 (3명)	총8명 참석